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화이트하트레인' 경기장에서 열린 영국프리미어리그(EPL)팀 토트넘 홋스퍼와 크리스탈 팰리스 FC 간 경기 중 EPL 데뷔골을 터뜨린 손흥민(왼쪽)이 동료선수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이날 토트넘 홋스퍼는 크리스탈 팰리스에 1대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EPL 2경기만에 데뷔골... '최다골 맛'도 보아야지

■ 코리언프리미어리그 데뷔골



박지성·이청용 등 한국인 7명 골맛... '시즌 최다' 기성용 8골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에 입단한 '손사인' 손흥민(23)이 정규리그에서 불과 2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2015-2016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0-0으로 팽팽하던 후반 22분 결승골이자 자신의 정규리그 데뷔골을 꽂았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밟은 13명의 '코리언리거' 가운데 최단 경기에서 기록한 데뷔골이기도 하다.

각종 컵대회를 제외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골맛을 본 한국 선수는 손흥민을 포함해 7명이다.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1호이자 아시아 축구의 레전드인 박지성의 데뷔골은 무려

30경기만에 나왔다. 박지성은 2006년 4월 33라운드 아스널과의 홈 경기에서 후반전 췌기골을 꽂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의 2-0 승리를 매조했다. 입단하고 9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7시즌 동안 맨유에 몸담은 박지성은 2006-2007, 2010-2011 시즌 5골씩을 기록했는데 이는 한동안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기록이었다.

데뷔골만큼은 박지성보다 설기현이 빨랐다. 2006-2007시즌을 앞두고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로 레딩에 입단하며 프리미어리그가 된 설기현은 2006년 9월 16일 자신의 5번째 프리미어리그 경기인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에서 전반 25분 결승골을 넣었다. 그러나 점차 부진에 빠지며 그 시즌 4득점에 그쳤고 2007-2008시즌에는 3경기

출전 무득점에 그쳤다.

이청용(크리스탈팰리스)과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도 시작이 화려했다. 2009년 볼턴 원더러스에 입단한 이청용은 정규리그 출전 3경기만인 7라운드 버밍엄시티전에서 경기 종료 5분 전 2-1 결승골을 터뜨렸다. 당시 나이는 불과 21세 2개월이었는데 2년 뒤 한국인 최연소 프리미어리그 득점 타이틀을 몰려받은 선수 지동원이었다. 2011-2012시즌을 앞두고 선덜랜드에 입단한 지동원은 20세 4개월이던 2011년 9월 10일 자신의 정규리그 3번째 경기인 첼시전에서 후반 37분 만회골을 넣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볼턴 주축 멤버로 활약하던 이청용은 2011-2012시즌 직전 연습경

기에서 정강이뼈 골절 부상을 입었고 올해 초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하며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했다. 데뷔 시즌 2골에 그친 지동원은 이적과 입대를 반복하다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다.

2013-2014시즌 정규리그 11경기만인 12라운드 맨유전에서 후반 45분 동점골로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기록한 김보경도 지금은 일본 J리그에서 뛰고 있다.

한국인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은 미드필더 기성용(스완지시티)이 보유하고 있다. 2014-2015시즌 기성용은 정규리그에서 8골을 터뜨리며 한국인 최다 득점자 타이틀을 가져갔다.

불과 2경기만에 데뷔골을 터뜨린 손흥민 앞에는 32경기가 남아있다. 분데스리가에서 3시즌 연속 두자릿수 득점을 올린 그가 지금의 기세를 이어간다면 8골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

“운이 좋았다...매주 골 넣고 싶어”

손흥민 일문일답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EPL 데뷔골을 넣은 '손사인' 손흥민은 “동료들이 자기 가 넣은 것처럼 축하해줬다”고 기뻐했다. 손흥민은 20일(현지시간) 경기 후 믹 스톤슨에서 만난 자리에서 EPL 데뷔골 소감을 묻는 물음에 이같이 말하며 동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손흥민은 이날 영국 런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6라운드 홈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골은 지난 18일 유로파리그에 이은 토트넘 이적 후 두 경기 연속 골이다.

손흥민은 “힘든 경기였는데 홈에서 데뷔골을 넣고, 팀이 이겨서 기분이 좋다”며 “매주 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골 욕심도 드러냈다.

다음은 손흥민과의 일문일답.

-활약을 펼쳤다. 소감은.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모르겠네요(웃음). 운이 좀 좋았던 것 같다.

-첫 골 당시 상황은.
▲너무 역습이 빨라서 속도를 유지해 갔다고 생각했다. 순간 수비랑 1대1 상황이 나왔는데 내 장기인 왼발 오른발 모두 잘 수 있어 수비 상황보고 왼쪽으로 때렸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다. 그냥

찾는데 들어간 것 같다.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 어땠나?
▲좋은 경기력으로 팀 전체가 멋있는 승리를 선사할 수 있어서 기쁘다.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컨디션이 좋아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었던 것 같다.

-첫 골을 도운 에릭슨과 호흡이 잘 맞는 듯. 골 넣을 때 동료들이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
▲공격형 미드필드형 선수와 워낙 좋은 선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오래 뛰지 않았지만 에릭슨과 호흡이 좋았던 것 같다. 많이 기대고 있다.(웃음). 선수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 또 이긴 거에 대해서 뿌듯해 하는 것 같다. 나도 이긴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웃음). 선수들이 마치 자신이 골을 넣은 것처럼 좋아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

-이청용 선수와 어떤 얘기 나눴나.
▲한국 선수가 경기장에 있으면 좀 설레고 기대감도 든다. 청용이형이 오늘 안 나와서 많이 아쉽다. 청용이형이 거의 우리 팀을 응원한 것 같다(웃음). 고맙게 생각한다.

-EPL 무대에서 한국인 에이스로 자리 잡는 거 아닌가.
▲아직 너무 멀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첫발도 안 디뎠다. 최대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다. 경기장에서 나만의 색깔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연합뉴스

광주 송일중 유해란, 예비양 주니어컵 2관왕

개인·단체전 우승

10대 여중생이 프랑스 골프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광주 송일중(교장 박원민) 유해란(14·2년·사진)이 최근 프랑스 예비양 르벵의 예비양골프장에서 열린 '예비양챔피언십 주니어컵' 2관왕에 올랐다.

유해란은 개인전에서 2라운드 합계 12언더파 132타를 쳐 두모한(중국·4언더파 140타)을 8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유해란은 이어 남녀 2명씩, 4명으로 구성된 단체전(채상훈, 조우영, 홍예은)에도 참여, 428타를 기록해 435타를 친 미국을 7타 차로 따돌리며 2관왕에 올랐다.

예비양챔피언십 주니어컵은 유럽골프 협회가 공식 인증한 대회로, 스타 골퍼로 발돋움하기 위한 등용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대회에는 유럽의 14개팀과 대회 조직위원회가 선정한 와일드카드 4팀 등 총 18개팀이 참가했다. 한국은 풀무원다는 후원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유해란은 이미 지난해 KLPGA 준회원 심기테스트 면제 특권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 열린 '2015년 광주시 골프협회장배 춘계학생골프대회', '제 16회 광주시 교육감배 학생골프대회', '제 26회 그린배 전국 중·고등학교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쥘 등 발군의 실력을 자랑해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제이슨 데이, PGA 5승·세계랭킹 1위 '해피데이'

플레이오프 3차전 우승

제이슨 데이(호주)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우승, 시즌 5승과 함께 세계랭킹 1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데이는 21일 미국 일리노이주 레이크포리스트의 퀴웨이 팜스 골프클럽(파71·7251야드)에서 열린 BMW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2타를 줄였다.

6타차 선두로 여유있게 4라운드를 시작한 데이는 함께 22언더파 262타를 적어내

다니얼 버거(미국·16언더파 268타)를 따돌렸다. 우승상금은 148만5000달러(약 17억2000만원)다. 데이는 타이거 우즈(미국), 비제이 싱(피지)과 함께 지난 20년간 한 시즌에 5승 이상을 올린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데이는 또 이번 우승으로 새로 발표되는 세계랭킹에서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조던 스피스(미국)를 뛰어 넘어 1위에 오른다.

호주 선수가 세계랭킹 1위에 오르는 것은 그레그 노먼, 애덤 스콧에 이어 데이가 세 번째다. 데이는 페덱스컵 랭킹에서도 1위 자리를 확고히 해 24일 개막하는 플레이오

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서 1000만 달러의 보너스 상금을 노린다.

한국의 배상문(29)도 함께 1언더파 283타를 쳐 공동 53위로 대회를 마쳐 페덱스컵 랭킹 28위로 투어 챔피언십에 합류했다. 한국 국적의 선수가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한 것은 2011년 최경주(45·SK텔레콤), 양용은(43) 이후 4년 만이다.

리키 파울러(미국)와 매길로이는 나란히 14언더파 270타를 쳐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파울러는 페덱스컵 랭킹 3위, 매길로이는 11위로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했다. /연합뉴스